

# 유럽의 난민 사태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European Refugee Problem

빔 리트게르크 Wim Rietkerk | 번역 성기진



최근 유럽으로 몰려든 중동의 난민들과 이들이 촉발한 정치적 논쟁은 근대 유럽 문명을 지탱해 온 인본주의적 계몽주의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알려 준다. 유럽인들이 기독교적 뿌리를 되찾고 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만 지금의 난관을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팩트

유럽에 대규모로 난민이 몰려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헝가리와 벨기에 사람들이 난민 신세였고,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유대인, 직후에는 독일인들이 난민이 되어 주변 국가를 떠돌았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혁명과

현재 난민의 위기가  
과연 경제적인 문제 뿐일까?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전의 난민과 현재의 난민의 큰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이며,  
이 세계관에 근거한  
도덕적 가치관의 차이이다.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은 그 규모와 시점이 예전과는 다르다.

몇 가지 수치를 제시하자면, 2011년 이후 중동에서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은 6530만 명에 달하고, 그중 1610만 명이 유럽으로 도피했다. 2015년 한 해에만 독일에 100만여 명, 네덜란드에 88,536명의 난민이 도착했다. 2016년에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어 독일에 70만여 명, 네덜란드에 5만여 명이 도착했다.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 중 절반 정도가 받아들여졌다. 대부분의 난민은 아랍 세계, 특히 시리아에서 오지만, 에리트리아, 수단, 말리 등 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도 많다.

난민의 행렬은 끊이지 않는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걸어서 발칸 반도를 통과하거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넌다. 지중해를 건너다가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사고를 당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 때문에 EU의 여러 회

원국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어떤 나라는 난민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어떤 나라는 일부 받아들일기를 원하며,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내부적인 반발이 심하다.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마리 르펜<sup>1)</sup>이나 게르트 빌더스<sup>2)</sup>와 같은 정치인들은 이런 감정을 이용하여 단순히 자기들의 정책에 지지를 얻으려고 하기도 한다.

아랍과 아프리카에서 수천만 명이 죽거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재앙은 어째서 발생하는 것일까? 가장 명백한 원인은 독재이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한 혁명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부시가 주도한 이라크 전쟁은 이 지역에 권력과 리더십의 공백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근동의 많은 지역이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자면, 식민지 시대 말기에 서유럽 국가들이 근동을 제멋대로 갈라먹은 것도 원인이다. 이때부터 쌓이기 시작한 서양에 대한 증오심은 IS와 지하드 운동에 힘을 실어 주었고, 이들의 폭력성은 더 많은 난민을 만들어내고 있다.

### 위기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은 현재의 난민 위기를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독일에 도착한 난민 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6만 유로의 비용이 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들은 다수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 헝가리의 총리는 난민들을 일종의 “트로이 목마”로

1. 프랑스의 보수 성향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전선(FN)의 대표  
2. 네덜란드의 보수 성향 정당인 자유당(PVV)의 대표

판단하고 국경 폐쇄를 단행했다. 20세기에 유럽이 겪었던 몇 차례의 난민 사태와 달리, 아랍에서 찾아오는 난민들은 유럽의 기본적인 기독교적-인본주의적 가치들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의 난민들과 현재의 난민들의 가장 큰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이며, 그러한 세계관에 바탕을 둔 (도덕적) 가치관의 차이이다. 미국의 철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1994년 <문명의 충돌>에서 예견한 것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 시민들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여성의 지위, 종교의 자유, 동성애에 대한 시각 등 모두 도덕적인 이슈들이다.

우파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감에 편승하여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뿐 아니라 이슬람 자체에 대한 공포를 부추긴다. 이를테면,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10세 이하 세대의 10%가 이슬람 배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네덜란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양성평등,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와 같은 네덜란드의 가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유럽이라는 집을 받치고 있는 일곱 기둥<sup>3)</sup>을 인정할 것인가? 이민자들이 우리의 집과 직업을 빼앗아 가면 원래부터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가난해지기밖에 더 하겠는가? 유럽이 “유라비아”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현재 유럽의 위기는 이런 문화적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제 위기의 그림자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이것 때문에 EU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브렉시트!)

3. 유럽의 일곱 기둥

- 1) 직선적 시간 개념에 바탕을 둔 역사관
- 2) 인간 소명의 중요성
- 3) 노동의 구원
- 4) 인간의 존엄성
- 5) 중재하는 구조들
- 6) 도덕적 질서
- 7) 정치사회적 가치관

“압력이 가해지자 약점이 드러났다.”  
 훌륭한 기술과 튼튼한 경제가  
 그들의 가치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과연 그 가치관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난민들과 맞닥뜨린 유럽이 처한 진짜 문제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말했듯이 “Wir schaffen das” — 유럽은 난민 사태의 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도덕적인 질문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포퓰리즘에 편승한 지도자들이라도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민족주의(new nationalism)의 확산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프란시스 웨퍼는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라는 저서와 영화에서 유럽이 처한 문제의 근원을 알려 준다. 웨퍼는 고대 로마 문명을 이야기하다가 로마 시대에 지어진 다리를 가리키면서 “압력이 가해지자 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유럽 연합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에도 이와 같은 약점이 있다. 유럽은 훌륭한 기술과 튼튼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 유럽인들의 가치관에도 큰 문제





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러한 가치관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이다.

지금의 유럽은 남자와 여자, 가족, 과거와 미래, 신(神)과 운명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 문화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최근의 난민 사태는 유럽의 가면을 벗겨 버린 것이다. 유럽을 과연 기독교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위기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인간의 이성에만 기초한 가치관만 남은 유럽은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 뿌리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된다.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에게 해의 건너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16:9)고 외치는 한 사람을 보았다. 이 환상은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이 되었다.

요즘 필자는 이 환상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 유럽 문명은 성령의 인도 아래에 세워지고 성장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의 손길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성령이 없는 유럽은 연약하기 짝이 없다. 위기의 본질을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다시 부흥하고 새롭게 될 수 있다. 난민 사태는 유럽의 기초에 깊은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하고 묻는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참된 세

계관에 바탕을 둔 가치들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진리를 잃어버린 유럽의 기초에는 금이 가 있다. 오늘의 경험은 인본주의와 계몽주의가 한 문명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준다.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에 따르면 모든 문명은 초월성(Transcendence)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을 인정할 때에만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숭배 행위가 있다. 무엇을 숭배하느냐가 다를 뿐이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빌론 제국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다. 그들은 은과 금, 동과 철, 나무와 돌의 신들을 숭배했으나 정작 자기들의 호흡과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5:23). 그들의 숭배 대상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자 바빌론 제국도 삽시간에 붕괴되었다. 그리스와 로마도 다르지 않았다.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유럽의 문화도 초월성과 신성(The Divine)을 상실하고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이끌려 바울이 지적했듯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전 15:32)라고만 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위기는 난민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난민들의 물결은 기독교 세계관을 잃어버린 유럽 문명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 뿐이다.

난민 사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난민 사태를 빙자하여 극단적인 배타주의가 힘을 얻는 것이다.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문제는 유럽의 청년들이 이러한 극단주의에 현혹되어 지난 세기의 전쟁과 학살을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 뜻밖의 선물

유럽에 밀려든 난민들의 물결은 경제적인 문제와 도

덕적 딜레마를 일으키고,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이 대변하는 심각한 위기를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위기와 함께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다. 고국과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단절된 수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은 새로 정착한 땅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자, 놀랄 만큼 많은 수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슬람 교도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간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독일에 100만 명의 난민이 몰려든 한 해에 무려 3천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다.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동네 교회에도 70여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새신자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를 찾아간 어떤 선교사도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어 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뽕뽕 단혀 있기만 했던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 덕분에 이 강의를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칠 용기를 얻는다. 혹시 하나님은 유럽을 기독교적 뿌리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난민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바울 사도를 유럽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꿈과 환상을 통해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나는 정말 궁금하다. 하나님은 지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 모든 민족은 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이다!

※ 본 내용은 지난 2017년 1월, 한국라브리공동체와 함께 실시한 <기독교세계관학교>의 “나그네, 우리의 불편한 이웃”의 패널강의 자료 중 하나이다.